

“한반도 평화위해 불자들 한마음 모으자”

정전60주년 학술세미나서 한 목소리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위원장 사승)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평화론과 평화운동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정전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1부 기념법회에 이어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사회 하에 2부 세미나가 진행됐다.

- 오강남 “마음까지 내적 비무장
- 김용현 “북핵 해결 상호 신뢰 중요”
- 박경준 “불자들 실천 필요한 때”
- 유승무 “불교가 남북관계 실마리



오강남 교수 김용현 교수 박경준 교수 유승무 교수

적 비무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서로 연결되고 의존된 연가법에 따르면 스스로의 내적 비무장이 펼쳐져 평화화가 찾아온다”고 말했다.

북핵 시국은 평화 형성 출발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북한 3차 핵실험 국면’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핵 등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반도는 정전 상황으로 북한의 핵보유는 내부 결속과 더불어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 확보로 체제 유지와 북미·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필수요소”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날 남한의 핵보유, 북한 선제 타격 등 군사적 대응방안을 모두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군사적 대응은 모두 수도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을 담보로 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을 통해 남북간 대화와 평화체제가 구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전 60주년을 맞는 올해가 불안한 휴전상태와 군사대결을 종식시킬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분단 한반도에서 상호간 해지는 군사적 불신과 위협을 제거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는 궁극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사상, 남북관계 대립 완화 시켜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불교의 평화론과 남북관계’ 발표에서 평화에 대한 불교 사상을 살펴보고 통일과 평화 구축의 기원을 넘어 불자들이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불교는 자유와 평화의 이념을 똑같이 중시한다”며 “자유에 기초하면 서로 이타적 자비의 실천을 통해 평등으로 나아가려는 불교는 오늘날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불교인은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발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 평화통일의 실질적 견인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통일 운동 등을 전개하는 불교시민단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단체들과 서로 협력할 때 불교 정신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도 ‘불교평화운동의 합심주의적 특성과 그 실천적 함의’ 발표를 통해 “한국불교가 생명과 평화 등 근원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와 티베트인의 불교평화운동 사례를 살펴본 유 교수는 “종교는 국가와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힘의 대립 사이에서 불교가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발제와 주제발표에 이어 이창희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기획위원과 이도훈 한양대 교수,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의 사지’ 2012년 보고서 나와

불교문화재연구원, 대구·경북 지역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임)는 2012년 사지 학술조사사업 결과를 모은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년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의 사지(寺址)’는 지난해에 발간된 ‘한국사지총람’에 수록된 대구·경북 지역의 폐사지를 대상으로 사역(寺域) 확인, 식생(植生), 유구·유물 수색 등 사지(寺址) 발자취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번에 조사된 사지는 총 694개소로 현장조사결과 44개소가 신규 발견됐다. 특히, 사지(寺址)의 운영시기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기와 편에 대해서는 3차원 스캔 작업을 통해 그 이미지를 탁본처리 후 수록하였고, 중요 문화재가 남아 있는 사지(寺址)는 현재의 주변 환경을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항공촬영을 하여 보고서에 담았다.

옛 문헌과 각종 연구자료 등의 성과물을 반영해 출어려 있는 사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한국의 사지(寺址)’는 앞으로 사지(寺址) 보존·관리방안 마련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사지(寺址)’는 전국의 지방자



2012 한국의 사지 대구·경북 지역편

치단체, 매장문화재발굴기관, 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화재정보 홈페이지(www.cha.go.kr)에도 게시해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사지 학술조사사업은 2015년까지 진행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총 15명으로 3개 조사팀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0년 서울·인천·경기, 2011년 광주·부산·제주·전남, 2012년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2013년에는 울산·경남·전북·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개 사찰에서 조사사업이 실시된다. 특히 2013년에는 비지정소제문화재가 있는 사지, 훼손 우려가 있는 사지가 우선적으로 조사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원 한문강좌 개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3월 8일까지 불교한문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3월 4일 6월 21일까지 저녁 6시 30분부터 수업이 진행된다. 강좌는 월요일 유마경(신원 스님), 화요일 초서(양진석), 수요일 도서(박해당)·천태사

교(한명숙), 목요일 고문진보(이상현), 금요일 논어 대학(공근식)·맹자 증용(변중) 등이다. 1강좌 당 수강료는 20만원. 동국대 재학생, 교직원 30% 할인된다. (02)6713-5163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 제2회 전법학술상 공모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4월 30일까지 제2회 전법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 전법학술상은 광덕 스님의 전법행을 계승해 전법(傳法)과 교화(教化)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에서 전법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기 위한 상이다.

2012년 제정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전법학술상 논문 공모 주제는 △전법교화에 대한 불교사상 연구 분석 △전법교화의 역사적 사례와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전법교화의 현대적 방법론 제시 △전법교화의 모범사례 발굴과 해외사례 비교연구 △전법교화에 헌신한 인물에 대한 연구 △전법론 분석이다.

4월 30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격은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국

내외 학자 외에도 각종 불교기관 종사자들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발표논문 가운데 수상하지 않은 논문도 접수가능하다. 접수된 논문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바라밀상 1편과 전법상 2편, 보현상 1편을 선정한다. 당선 논문에는 최고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학술연찬회 발표 등의 특전도 주어진다.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전법은 불법을 전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전법상은 불교학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교계 담론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지장시왕도 등 4건 보물 지정 예고

해인사 지장시왕도 등 불교문화재 4건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2월 28일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 등 유물 4건을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등이다.



해인사 지장시왕도

통, 조성발원문 등을 조성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발원문을 통해 1647년(인조 25)의 정확한 조성시기와 함께 봉안사찰, 조성주체, 제작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은 <대불정여래일수증류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인쇄 권5>, <금강반야바라밀경> 등으로 조선 전기에 간행된 판본들로 완결성과 회귀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노덕현 기자



“인증업체 통한 방재시설 설치 필요”

조계종 문화부는 2월 2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예

장에서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 대상 사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박희승 문화부 차장은 “중단은 장비의 표준화와 관제 시스템 통합화를 통해 통합 관제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중단 인증업체를 통한 시설 구축이 이뤄져야 일괄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단 인증업체인 세터정보통신과 파스텍의 최첨단 지능형 통합 장애 예측시스템과 전기예측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도 함께 진행했다. 2013년 대상 사찰은 총 123곳으로 이 가운데 중단 소속 사찰은 101곳으로 2012년에 비해 19곳이 늘어났다. 예산도 지난해 250억원에서 265억원 늘어난 275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문화부는 중단 인증업체를 통한 방재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원 기자

화제의 신간 새로운 천년의 터

천년의 풍수역사를 정리한다.

이 책은 현재 모호한 풍수지리 정의에 일대 혁명적인 검증과 실증으로 풍수의 본질적 실체를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친 살아있는 글이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중대사를 열거 한다. 우리의 풍수역사는 천백년전 통일신라말기 도선국사를 시조로 하여 이어지고 있다. 이때가 즉 풍수 1세대이다. 도선국사는 그가 생전에는 저서들을 제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지리산 청학동에 숨겨놓고 후대에 그곳을 찾아내는 사람한테 그 법문을 잇게 하는 절묘하고 신묘한 방법을 택했다. 그리하여 500년 후 이조초기 무학대사가 청학동을 찾아 들어가 그 법문을 끌어지지 않게 이어 놓았다. 풍수 2세대인 것이다. 그 후로 청학동의 실체를 알아냈다.

모성학자음 / 신국판 / 532쪽 / 정가 23,000원

육임이 보인다 공산 지음/4x6배판/양장본/70,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신국판/양장본/송일님 지음/75,000원	한국인의 별명 자미두수 비법 4x6배판/高山 임청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영 서상덕 역 / 지산국판/40,000원	그림 당시주 대전 4x6배판/이선원 진호일 공자/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송일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여기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미를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일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중국 사립,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사행 지음/26,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물,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하면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